

동굴과 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of Caves and Culture

이정애¹⁰⁾ · 이영애¹¹⁾

국문초록

동굴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강 가까운 동굴 속에 살면서 바닷가나 냇가에 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살아가는 등 먼 옛날 석기시대에는 혈거생활의 주거지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즉, 때로는 은신처로 이용되어 왔고 때로는 묘지로, 작전기지로, 그리고 물자의 저장고로도 이용되었고 그 밖에 수양터와 신앙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었다.

이러한 증거로서 人骨化石, 생활을 위해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다량의 도구 등 일상용품이 아직도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여러 개의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성인상으로는 모두 제주도의 화산 폭발과 관련된 것이어서 용암동굴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삼성혈은 제주도의 삼성신화, 즉 부족 형성과 관련있는 것이고, 빌레못동굴은 구석기시대에도 제주도가 주거지로 이용되었음을 입증받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김녕사굴의 설화는 제주도 설화의 하나로써 제주도 정부와 주민들간의 일치단결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방굴은 제주도 여인들의 기개에 대한 예를 나타내 주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군체인 만장굴은 여인의 한을 전설로 담고 있다.

이렇듯이 동굴은 인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동굴은 그 학술적·문화적 가치로서는 물론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관광적 측면에서도 그 보전 및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1. 서론

동굴은 지중에 형성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공동으로 형성 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동굴과 인공동굴로 나누는데, 동굴의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자연동굴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1,000여 개의 자연동굴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조교

* 한민족여성연합회 이사

이 있다. 이들은 옛부터 우리 조상들의 주거지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난처로 이용되어 왔고, 심신수련의 도장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의 대부분이 山水景致가 수려한 곳에 있기 때문에 관광동굴로도 개발하여 이용되게 되었으므로, 동굴은 점차 지역소득원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29년에 평북 영변군 동룡굴, 그리고 1960년에 경북 울진의 성류굴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뒤이어 제주도의 금녕사굴과 만장굴, 협제굴 등 수많은 동굴들이 관광동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실상 동굴은 우리 지리 분야의 현장학습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른 부분과 같이 본격적인 동굴에 대한 공동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동굴에 대해서 제주도의 동굴을 사례로 하여 자연적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인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으로서 우리 인간 생활과 어떤 상관성을 가졌는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동굴과 문화

1) 동굴과 인류문화와의 상관성

초기의 인류와 그 문화에 관한 지식은 주로 동굴의 탐험과 연구에 의하여 얻어지고 있다. 인류의 오랜 선조의 화석의 대부분이 동굴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동굴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강 가까운 동굴 속에 살면서 바닷가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살아가는 등 먼 옛날 석기시대에는 열거생활의 주거지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인류가 발전

함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즉, 때로는 은신처로 이용되어 왔고 때로는 묘지로, 작전기지로, 그리고 물자의 저장고로도 이용되었고 그 밖에 수양터와 신앙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었다.

그것은 인간도 동물처럼 기후 불순, 변화에 따라 즉 태풍이나 대홍수, 추위와 가뭄 등을 피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주거지를 선택하였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된 것이 자연적 피신처인 동굴로서 무기와 공구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주위에서 동물 사냥이 가능하며 기후의 악조건, 야생동물과 적의 무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음료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두운 동굴과 빗물이 스며드는 석회석동굴을 가뭄이 극심한 계절에 즐겨 찾은 것이다.

이러한 증거로서 人骨化石, 생활을 위해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다량의 도구 등 일상용품이 아직도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동굴입구나 동굴에 남겨진 文化展은 때로 음식찌꺼기, 일터(공구 제작소)와 잠자는 곳으로 확실히 구분되는데 爐地 가장자리에는 사람이 앉았던 커다란 화석이 놓여있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생활의 흔적은 자연적인 것도 남아 있지만 생활과 사상의 일면을 나타낸 벽화도 많다. 이와 같이 동굴문화전 유물의 보호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세계 인류사를 이태시킨 가장 훌륭한 안식처이기도 한 동굴은 인류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 제공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느 사이엔가 동굴은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오히려 악령의 소굴이라 불리울만큼 미지의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갖가지 전설만을 낳게 한 신비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동굴이 인류사적으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많은 사람들과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제 동굴은 그 학술적·문화적 가치로서는 물론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관광적 측면에서도 그 보전 및 연구·개발이 시급한 것이다.

2) 제주도의 동굴문화 사례

다양한 가치가 있는 동굴과 관련있는 동굴문화의 사례를 제주도 지역의 예를 들어 살펴본다.

(1) 三姓穴

삼성혈은 사적 제 134호로서 三姓祠構내 7,097 평을 유사 이전의 유적으로 중시하여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三姓神話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三神人이 毛興穴에서 용출하여 수렵생활을 했는데, 어느날 碧浪國(또는 일본국) 사자가 삼신녀와 駒犢 및 오곡종을 石函에 담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신인은 활을 쏘아 정착지를 정하고 삼신녀와 서로 혼인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삼신인은 오늘날 제주도의 고유한 즉 高, 梁, 夫 삼성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신화는 해석신화적으로 해석한다면 수렵에서 농경문화로 넘어가는 시대 씨족 연합의 부족사회 형성단계에 이룩된 신화로서 山神, 地神, 海神, 氏祖神, 村神 등의 다양한 신앙의 통합에서 이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다. 그런데 이 신화는 우리 나라의 어느 건국신화나 씨조신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을 지녔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우리 나라는 단군, 주몽, 박혁거세, 김알지, 김수로 등 건국시조 신화를 많이 갖고 있지만, 북방의 것은 天降으로 이야기되고 남방의 것은 卵生으로 설명하나 이 삼성신화만은 「從地湧出」이라 설명하고 그 용출지인 모흥혈(삼성혈)이 현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화 중의 벽랑국, 활을 쏘아 정착지를 정했다는 三射石의 현존 등 참으

로 학술상 흥미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신화 속에는 제주도 선조들의 신앙, 사회제도, 생산경제, 습관 및 그 역사 및 지혜, 창조력이 온통 담겨 있는데 그 실증물인 삼성혈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곳인 것이다. 오늘날 이 삼성혈은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위 지표면의 흩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 저렇게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사람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많이 막혀 버렸지만 분명히 신화에 의하면 제주의 고유한 산성의 씨조가 땅속 깊은 굴로부터 솟아 나왔다는 무척이나 흥미롭고 희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 관심을 끈다.

(2) 빌레못 동굴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리의 해안 가까이 있는 이 동굴은 구석기시대의 穴居遺蹟임이 확인됐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물화석을 동반한 이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한반도의 가장 남단섬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제 4 빙하기 이전 즉 7~8만년전 중기 구석기 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짙으며 당시 한반도 전역에 걸친 구석기문화를 확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황곰, 사슴, 노루 등의 동물 뼈와 함께 편마암으로 만든 타제석기(글개) 및 골각기, 목탄 등이 발견됨으로써 오랜 옛시대에 인류가 서식한 증거물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한라산의 서북쪽 해발 50m 남짓한 들판에 입구가 뚫려있는 이 용암동굴은 자연동굴을 이용해 주거로 삼던 시대에 능히 이용됐음직한 지점으로 현재는 굴 입구에서 1.5km 들어가서 혈거의 자취가 있지만, 원래 이 동굴의 입구는 현재의 입구와는 달리 화석 가까운데 뚫려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함몰되어 오랜 기간 지하에 묻혀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황곰은 반도와 제주도가 하나의 육지로 연결됐던 때에 건너간 동물로서 이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기·후기 홍적세에 서식했

던 동물로서 약 40~50만년전부터 살아왔으며 아직도 몽고·알래스카 동지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황곰뼈와 함께 발견된 사슴 석기·骨角器 등으로 미루어 후기 빙하기에 해수면이 높아져 제주가 섬으로 뒀에 따라 그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황골의 화석은 함북지방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특히 북경 주구점 유적에선 人骨과 함께 출토된 바 있다. 곰은 본디 동굴을 이용하는 동물로서 인류가 처음 혈거를 시작하던 원시시대에 서로 자리 다툼의 혈투를 벌였는데 고대설화 가운데 곰에 대한 것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 한다. 여기 동물화석과 함께 발견된 인공의 석기는 회색편마암을 깨어 날이 서게 만듦으로써 글게(스크레이퍼)로 사용한 것과 용암조각에 인공의 흔적이 있는 점 등이다. 또 골편을 칼이나 글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있으며, 그런 원시도구로 살을 벨 때 굽힌 자국이 동물의 뼈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들 화석과 석기는 진흙양금의 퇴적층 위에서 수습된 것들이며, 앞으로 그 유적층을 면밀히 발굴하고 당시의 동굴 입구를 찾아냄에 따라 이 구석기 유적의 상황이 보다 확연해 질 것으로 내다 봤는데, 최근의 조사로는 빌레못동굴은 제주도 내의 단일용암동굴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다.

(3) 金寧蛇窟

제주시에서 70리 떨어진 제주도 동북해안의 김녕으로부터 1km 떨어진 언덕 별판 위에 옛부터 이름난 동굴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김녕사굴이다.

아득한 옛날 이 김녕굴에는 인간이 살지 않고 금빛이 찬란한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큰 독만한 머리에 5섬의 곡식이 들어간 만큼 찬란 귀를 가진 뱀이었다고 전해진다. 옛날 이 곳 사람들은 이

김녕을 신령님이라고 하여 해마다 술과 음식을 성대히 차려 제사를 지내고 열다섯살 먹은 처녀를 바쳐야만 아무런 재앙이 없이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다. 이 큰 뱀은 술과 안주를 먹고 처녀를 끌어들이어 잡아 먹었으니 해마다 심오세 난 처녀를 선발하여 바치는 것은 이곳 주민들의 커다란 고통이요 문제거리였다. 누구집 처녀를 바치느냐 하는 것도 큰일이고 죄없는 착하고 순진한 처녀를 죽이는 것 또한 인도상 차마 하지 못할 비극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신령님인 큰 구렁이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무서운 비바람의 재앙을 몰고와 농사와 어업을 망친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사는 이곳 사람들의 전설적 신앙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다 조선 중종 11년에 徐隣이 판관으로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다. 서린은 성격이 곧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임한 가을 어느날 김녕굴의 이야기를 듣고 이 뱀을 처치하기로 일단 결판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를 극구 말렸다. 그러나 서판관은 김녕굴에 酒食을 차리게 하고 처녀를 제삿상 앞에 눕혀 놓고 군교 30명을 거느리고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큰 머리를 가진 뱀이 기어나와 술과 안주를 먹고 처녀를 더듬어 보더니 큰 입을 벌리고 덤비는 것이었다. 이때 숨어있던 군교들이 와르르 달려나와 긴 창을 들고 있던 판고나이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푼찌르자 뱀은 그 커다란 동체를 꿈틀하며 처녀 옆에 비명을 쓰러지고 말았다. 다시 판관은 군교들에게 명령하여 처녀를 배보내고 뱀에 초를 치고 숯불로 태워 죽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앙이 닦칠 것을 크게 걱정하여 판관을 심히 나무랐으나 처녀는 억울한 죽음을 모면하고 그 금뱀이 도살된 이후 재앙이 일지 않았다고 한다.

금빛의 괴물뱀이 살면서 해마다 어여쁜 처녀를 생죽음시키며 이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이 금녕사굴은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4) 山房窟

해발 350m의 동산의 山房이 山房窟이다. 천연동굴의 벽에서는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 흐르고 바위에는 불상을 안치한 天然佛岩이 있는데, 이것이 곧 산방굴의 화신이라는 전설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보기 드문 불교의 사적이 있는 큰 동굴이어서 고려의 혜일대덕이라는 고승이 수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동굴이 높고 넓어서 백여명의 불도들이 모여 앉아 수도하였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제주에는 房德이라는 미인이 있었다. 그 여자는 어선을 부리는 高升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날 州官이 지나다가 방덕을 보고 한 눈에 반하고 말았다. 주관은 색마였다. 방덕의 미색에 도취하여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저기 가는 저 여자는 누구냐? 불러 오너라.」 하고 종자에게 말하니,

「방덕이라고 부르는 고승의 아내이옵니다. 하오나 처녀도 아닌 人妻를 탐하시렵니까?」 하고 동자가 대답하자,

「내 일찍이 저런 요조숙녀를 보지 못했다. 어서 수청들라 하여라.」 하고 주관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방덕은 듣지 아니하였다.

「주관은 행정이나 잘 할 일이지, 남의 아내를 엿보느냐!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고로, 이부종사하지 못하겠다.」 하자 종자가

「방덕아, 주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니

「나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부종사 못하겠으니 물러가거라.」 라고 방덕이 말하였다.

주관이 종자의 전갈을 듣고

「옳은 말이다. 이부종사 못함은 人妻의 바른 행실이다.」 하고 방덕의 남편인 고승을 잡아들이게 하고 억울한 죄명을 씌웠다.

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역했다는 것이다. 주관은 고승을 죽인 뒤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한 그의 처를 약탈하려 했다. 그러나 방덕은 주관의 야욕을 끝끝내 물리치고 산 속에 들어가 숨어 버렸다. 그때 숨은 곳이 바로 산방굴이었다. 방덕은 죽은 고승의 명복을 빌면서 눈물을 흘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저 무도한 주관에게 벌을 내리시고 주민의 안락을 위하여 도움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한 달을 굶으면서 빌었다.

방덕의 거북한 뜻이 무심한 바위 덩어리에도 감동을 주었던지 방덕은 불암으로 변하고 암벽에서는 샘 같은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후 이곳 사람들은 이 굴을 산방굴이라 불렀고, 또는 山房窟寺라고도 불렀다.

제주도의 전설에는 산방굴과 같이 守節하다가 죽어서 돌로 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산방굴과 節婦岩이 유명하고, 또한 그 정신이 전해 내려와서 제주도 여성들의 영성관 내지는 정조관을 이룬 것이다.

(5) 萬丈窟

이 만장굴은 제 2 입구에서 출발하여 계속 나가다 보면 상하층굴이 무너져 있어 아래 위 어느 쪽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2층으로 넘어가서 150m 정도 나가면 저만치 윗쪽으로 마침내 뿌연게 빛이 흘러드러어오는 넓적한 바위구멍이 보이고, 여기를 올라서면 드디어 만장굴 최종단인 「만쟁이 거머리」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陷沒口가 바로 거인의 요정단지라고 일컬어지는 만장굴의 절경으로, 여기 또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이야기인즉, 어느 눈보라가 치는 밤 德泉에 사는 한 여인이 아이를 등에 업고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만쟁이 거

머리」에 그만 빠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방이 안으로 휘어든 요강 속 같은 곳에서 킁킁하여 올라오지도 못한 그녀는 그 속에서 울부짖다 추위와 굶주림에 마참내는 죽고 말았는데, 그 후로는 이곳에서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어미 밥도고」하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애절하게 들려 온다는 것이다.

3. 결론

동굴은 지중에 형성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공동으로 형성 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동굴과 인공동굴로 나누는데, 동굴의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자연동굴이다. 우리 나라에는 약 1,000여 개의 자연동굴이 있다.

동굴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강 가까운 동굴 속에 살면서 바닷가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살아가는 동안 옛날 석기시대에는 혈거생활의 주거지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즉, 때로는 은신처로 이용되어 왔고 때로는 묘지로, 작전기지로, 그리고 물자의 저장고로도 이용되었고 그 밖에 수양터와 신앙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었다.

이러한 증거로서 人骨化石, 생활을 위해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다량의 도구 등 일상용품이 아직도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여러 개의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성인상으로는 모두 제주도의 화산 폭발과 관련된 것이어서 용암동굴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삼성혈은 제주도의 삼성신화, 즉 부족 형성과 관련있는 것이고, 빌레못동굴은 구석기시대에도 제주도가 주거지로 이용되었음을 입증받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김녕사굴의 설화는 제주도 설화의 하나로서 제주도 정부와 주민들간의 일치단결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방굴은 제주도 여인들의 기개에 대한 예를 나타내 주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군체인 만장굴은 여인의 한을 전설로 담고 있다.

이렇듯이 동굴은 인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동굴은 그 학술적·문화적 가치로서는 물론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관광적 측면에서도 그 보전 및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승삼, 1978, “제주도 용암동굴에 관한 연구,” 「동굴」, 제 3권 제 3호.
강승삼, 1996, “제주도의 동굴자원 연구,” 「동굴」, 제 44권 제 45호.
권동희, 1996, “화성암과 제주도의 용암동굴 소고,” 「동굴」, 제 44권 제 45호.
권중국외 10명, 1991, “제주도의 화산과 동굴,” 「동굴」, 제 23권 제 24호.
동굴학회 편집부, 1986, “제주도의 화산동굴,” 「동굴」, 제 13권 제 14호.
박병수, 1981, “제주도 용암동굴의 성인과 특성,” 「동굴」, 제 6권 제 7호.
원종관, 1981, “제주도의 형성사,” 「동굴」, 제 6권 제 7호.
제주도, 1993, 「제주도 연감」.
홍시환, 1982, 「한국의 용암동굴」, 한국동굴학회.
홍시환, 1991, “제주도의 동굴 개관,” 「동굴」, 제 25권 제 26호.
홍시환, 1992, “동굴과 인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굴」, 제 29권 제 30호.